

“배꽃 얼어 인공수분도 못해...올 농사 포기”

지난주 영하 날씨에 냉해 났던 나주 산포면 배 농가 가보니

“20년 넘게 배농사를 지었는데 이번 같은 피해는 처음입니다. 꽃이 얼어 인공수분조차 못해 올 농사는 포기했습니다.”

11일 오전 나주시 산포면 인근 배 과수원에 만난 남형근(59)씨는 수십 년간 애지중지 돌봐온 배나무를 보며 한숨만 내쉬었다.

지난주 때어난 영하권 추위로, 개화한 배꽃에 심각한 냉해가 덮쳤기 때문이다.

남씨의 3만3057㎡(1만여평) 규모 과수원 내 배꽃은 대부분 까맣게 변색돼 있었고, 암술 씨방이 썩어버린 배꽃들이 가득했다.

남씨는 “배꽃이 피면 기온이 20도 안팎을 유지해야 생육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며 “따뜻해야 할 4월에 갑자기 눈이 쏟아지고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과수원 1만평 중 90% 상당이 냉해가 발생한 것 같다”며 “배꽃이 핀 후 3~4일 후에는 인공수분(벌이나 나비 등 이용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교배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꽃이 어는 바람에 인공수분조차 포기했다”고 울먹였다.

인근에서 1만6528㎡(5000평)의 과수원을 운영하는 남윤화(60)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남씨는 “냉해가 왔지만, 배 농사를 포기할 수 없어 주위 만류에도 인공수분을 지

꽃잎 까맣게 타들어가고 암술 씨방 썩어 ‘한숨만’ ‘과수원 90% 상당 피해’ 순천 복숭아·보성 참다래 등 전남 곳곳서 이상저온 피해

난 8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했다”면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오는 25일까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전남·북 지역을 덮친 이상저온 현상으로 각 피어난 배꽃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등 각종 농작물에 심각한 냉해가 집중됐다.

전남도 등 관계 기관들은 냉해 실태 조사에 들어가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11일 전남도와 기상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 6~8일 나주 등 광주·전남·북 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뜻밖 추위와 함께 눈과 비가 몰아쳤다.

당시 꽃이 막 피기 시작한 과수나무 등이 큰 한파 피해를 봤다.

배는 인공수분이 이뤄지는 꽃이 만개 시기에 서리, 냉해 등이 발생하면 작과 불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컸다.



11일 나주시 산포면의 한 배과수원에서 냉해피해를 입은 배꽃잎과 암술이 까맣게 변해 있다. /나주=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지난 8일 남씨의 과수원 인근 최저기온은 영하 1.3도로, 전년 같은기간(6.1도)보다 7.4도나 낮았다.

나주배원예농협은 전체 2500여 배 농가(2100ha) 중 지대가 낮은 곳에 속하는 30%의 농가들이 집중적으로 냉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배의 경우 꽃이 냉해를 입게 되면 암술 씨방이 얼어 인공수분이 불가능한데다, 힘들게 열매를 맺더라도 당분이 떨어지거나 모양도 고르지 않아 상품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최장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연구관은 “배꽃은 만개시 영하 1.7도 기온이 30분 이상 지속할 경우 암술머리 등에

저온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냉해를 입은 농가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만, 배 농가 중에서 냉해피해를 포함한 특약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5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함께 전북 진안군에서는 인삼 재배면적(621ha) 중 30% 이상의 인삼 줄기가 꺾이고 색이 푸르게 변하는 냉해가 발생했다.

한편 전남도는 현재까지 순천 복숭아 58ha, 보성 참다래 35ha·오디 5ha, 곡성 옥수수·매실·감자 13ha 등이 냉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남도는 나주 배 농가 등에 대한 냉해 등도 집계 중이다.

/나주=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2018년 광주인권상’ 수상자 ‘스리랑카의 조비오’ 난다나 마타통가 신부

국가폭력 피해자 돕기 활동

5·18기념재단이 매년 선정하고 있는 ‘제16회 2018년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스리랑카 인권활동가인 난다나 마타통가(Nandana Manatunga·사진) 신부가 이름을 올렸다.

5·18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심사위)는 11일 5·18기념재단 시민사랑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장일치로 스리랑카 출신 난다나 마타통가 신부를 올해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난다나 마타통가 신부는 스리랑카에서 자행된 고문, 실종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는 성직자들과 희생자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으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을 시작했다”며 “스리랑카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편에서 불굴의 정신으로 투쟁한 점이 광주인권상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스리랑카의 역사를 살펴본 심사위는 무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거나 실종된 사례가 광주의 과거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난다나 신부는 마치 1980년대 광주시민들을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조비오 신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이하)고 밝혔다.

스리랑카는 인구 다수를 차지하는 불교계 싱할라족과 소수 힌두교계 타밀족 간의 종족·종교간 갈등으로 수십년째 내전이 진행되고 있다. 스리랑카 국민들은 1948년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난 이래 전쟁과 비상사태 속에서 고통받는 생활을



하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군과 타밀 반군간의 무력 충돌이 본격화된 1983년부터 살인·고문·실종·임의 체포 등 각종 불법 행위가 테러에 대응한다

는 명목으로 허용했다. 현재까지 수십만 명의 사상자, 100만명 이상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난다나 신부는 캔디인권사무소를 통해 국가폭력 피해자 구제와 보호 활동, 사법제도 정착을 위한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조 위원장은 “광주인권상이 1980년 광주와 현재의 스리랑카를 잇는 고리가 돼 인간 존엄성이 지켜지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5·18기념재단은 난다나 신부에게 2018년 수상자 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5월 18일 열리는 시상식 때 참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5·18재단은 올해부터 광주인권상 후보자 검증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전문위원회 검증 기간을 한 달에서 한 달 반으로 늘렸으며 ‘아시아 지역 언론인 네트워크 검증’을 처음 도입했다.

2004년 수상자인 미얀마 실권자 아웅산 수치가 지난해 미얀마 군부의 ‘로힝아족 학살’을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2007년 공동수상자 중 한 명인 레닌 라구와니쉬(인도)가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 받으며 그동안 후보자 검증에 세밀하게 해야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해상 충돌로 승객 다치게한 낚시배 선장 벌금 200만원

광주지법 형사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다른 여선과 충돌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낚시어선 선장 임모(4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충돌한 선박과의 거리가 5m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도 충돌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당시 충돌한 선박이 빠르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미리 발견하고 회피하는 등 조치를 했다면 충돌을 방지하거나 적어도 충돌 부위에 있는 승객을 대피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5년 경력의 9.7t급 낚시어선 선장이다.

그는 2015년 1월 신안군 흑산면 거제도 해상에서 승객 20명을 태우고 낚시 조업을 하다가 인근에서 조업 중인 12t급 어선과 충돌, 승객에게 전치 9주의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흡비 습격에 새까매진 차량

11일 오전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중국발 황사가 섞여 내린 흡비의 흔적이 묻어나왔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 청소년 폭행 조폭 구속

광주 광산경찰은 “거리에서 청소년 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공동상해)로 조직폭력배 A(22)씨를 구속하고 B(2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1일 새벽 0시 30분

께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도로에서 C(17)군과 D(20)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코뼈를 골절시키는 등 각각 전치 3주와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군 등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력조직인 신앙OB파 조직원으로,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에 구속됐다. /김한영기자 young@

옛 연인끼리 말다툼 끝 주먹질했다 나란히 경찰서행




○...한때 동거까지 했던 20대 연인이 성격 차이로 헤어진 뒤 서로 주먹질을 해 나란히 경찰서행.

○...11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A(23)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1시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애인과 있던 중 며칠 전 헤어져 옛 애인 B(여·22)씨가 방문하자,

말다툼 끝에 서로 밀치고 얼굴 등을 때렸다는 것.

○...지난 1월 A씨에게 ‘데이트 폭행’을 당했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가 옛 남자친구의 원룸에 자신의 집을 찾으며 갔다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서로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 /김용희기자 kimyh@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7(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191.03㎡(57.7평) 건물 : 728.97㎡(220.5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 27억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 : 7,662.4㎡(2,317.8평) 건물 : 6,864.61㎡(2076.5평) 지상 3층 매매가 95억 (보증금 4억2천, 월차임료2천6백만 외에 사우나·휘트니스 직영 등)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대출60억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20㎡(41.2평) 건물 : 265.58㎡(80.3평)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 12억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 : 3,104.6㎡(939.1평) 건물 : 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 : 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근린상가·요양병원(350메드이상) 적합-(상가와 요양병원 복합도 가능)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운암동 토지 : 2,769㎡(837.6평) 건물 : 3,793㎡(1147.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100억 병원, 학원, 사육 적합 (중증가능)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 : 619.62㎡(187.4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접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 : 2,756㎡(833.6평) 건물 : 3,568.32㎡(1079.4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56억 상담 후 결정
- ★ [의료시설]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 2,319㎡(701.4평) 건물 : 3,998.33㎡(1209.4평) 지상5층 매매가 : 65억 도로변,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

경매 추천 물건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공장) 토지 : 7339.4㎡(2220.2평) 건물 : 4153.34㎡(1256.4평) 감정가 : 6,489,967,980원 최저가 : 4,542,978,000원
-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근린주택) 토지 : 4200㎡(1270.5평) 건물 : 401.96㎡(121.6평) 감정가 : 473,683,800원 최저가 : 331,579,000원
-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공장) 건물 : 1149.74㎡(347.8평) 감정가 : 675,787,160원 최저가 : 675,787,160원
-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공장용지) 토지 : 15590.5㎡(4716.1평) 감정가 : 1,839,679,000원 최저가 : 1,030,220,000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